公害, 그 현장을 보라

최 도 영
〈MBC 라디오 프로듀서〉

오늘의 부가 환경파괴로 얻어진 상처뿐인 영광이라면, 세계무역 10위국이라는 찬사가 그렇게 자랑스런 것만은 아니다.

우리는 공해에 관한 한 달갑지않은 별칭을 여러개 갖고있다.

흔히 말하는 공해백화점, 수퍼마켓, 공해민국, 공해왕국 등등 모두 불명예스런 말이다.

옛부터 아름다운 금수강산이라고 불렸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지난 60년대 이후의 산업화 정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으며, 오늘 이 시간에도 공단지역 주민들은 공해로 신음하고있다.

건강했던 삶의 터전이 왜 이지경이 됐는가?

그 원인을 한 번 생각해보자.

첫째,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했던 성장지상주의의 산업화 정책으로 건강하던 국토가 병들었고, 이 사실을 알고자하는 사람, 알리려고하는 사람 모두에게 통제를 가했다.

60년대 근대화의 상징이 되었던 울산은 갖가지 공해가 뒤범벅이 된 공해비빔밥, 공해잡탕으로 시민들은 공해에 시달리고있으며, 바로 이웃마을 온산은 85년 무시무시했던 "온산병" 소동을 겪었지만 지금도 달라진게 별로 없다.

조상 대대로 고기를 잡으면서 평화롭게 살던 온산주민들은 공해로 찌들어 숨쉬기 조차 힘들고, 까닭없이 허리, 팔, 다리가 쑤신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또한 이주를 둘러싸고 주민들과 당국의 마찰이 끊이질않고 있으며, 이주마을인 덕신마을도 온산비철금속단지와 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있어, 잘 한 일인지 의심이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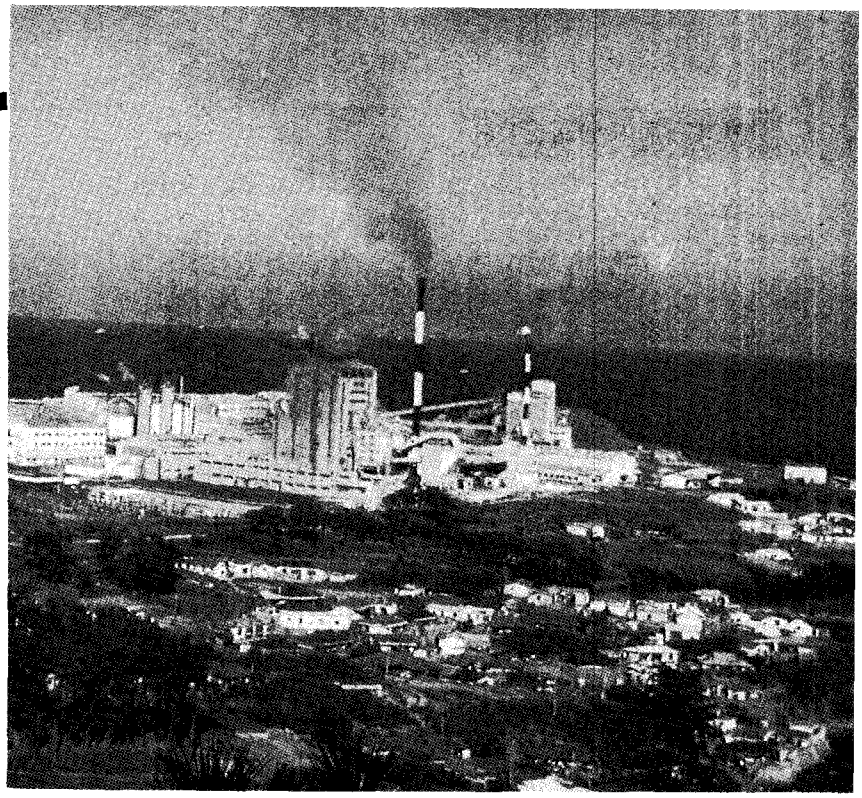
제2의 울산이 서해안 시대의 개막이 도래했다는 거창한 구호와 함께 시작된 서산, 당진, 군산, 목포와 같은 신흥임해공단지역에서 나타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둘째 이 땅이 공해로 찌들 건 썩건 간에 이윤만을 추구한 기업들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싶어한다. 그런데 문제는 공해방지시설을 갖추고, 가동하는 것 보다는 비밀배출구를 통해서 또는 장마철을 이용해서 폐수를 몰래 버려 비용을 줄이려는 데 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조금만 멀리 보면 폐수,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부도덕한 기업의 행위가 어떤 피해를 주는 지 쉽게 알 수 있다.

그 결과 공단지역 주민들은 온갖 공해로 신음하고 있으며, 토양이 오염돼 우리의 주식인 쌀에서도 중금속이 검출되고, 공장 주변의 하천은 공장에서 버린 폐수 때문에, 생명체 하나 살 수 없는 죽음의 하천이 돼버



렸다.

기업의 생산활동이 있었기에 오늘의 부를 이룰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해도 환경과 자연파괴로 얻어진 상처뿐인 영광이라면 국민소득 5천불, 세계 무역 10위국이라는 찬사가 그렇게 자랑스런 것만은 아니다.

해마다 겪은 물파동을 기업활동측면에서 살펴보자.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오염원은 생활화수, 축산폐수, 공장폐수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생활하수는 합성세제 사용에서 대개 생기고, 축산폐수는 소, 닭, 돼지사육에서 발생해 물을 더럽힌다.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가축은 점점 늘어가지만 오염방지시설은 턱없이 모자란 실정이어서 깨끗한 물을 마시기가 쉽지않다.

이처럼 생활하수, 축산폐수도 우리가 마시는 물을 더럽히는 요인이긴 하지만 중금속이나 독성물질이 들어있는 공장폐수보다는 위험성이 덜하다.

일본의 공해병 미나마따, "이따이 이따이" 병은 모두 공장폐수에서 나온 유기수은과 카드뮴 때문에 발생한 것만 봐도 생활하수가 양은 많을지언정, 공장폐수가 더 위험하다는 걸 증명하고도 남는다.

또 최근에 말썽이 되고있는 골프장은 어떤지 살펴보자.

골프장 한 개를 건설하기 위해선 수십만평의 땅이 있어야하고, 산과 구릉을 헐고 나무를

> "이 땅을 건강하게 보전,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와 후손들의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베어내야한다.

그다음에 잔디를 심고 위락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생태계 파괴를 하지않을 수 없다.

가뜩이나 좁은 땅에 — 택지난, 공장부지난으로 허덕이는 실정에서 — 골프장이 모두 들어서면 6천만평이나 된다고하니 우리는 인천직할시 만한 땅을 골프장으로 쓰는 셈이고, 골프를 즐기는 소수만이 이 땅을 독점하게 된다.

골프장 세울 땅은 있어도 공장 세울 땅이 없다는 건 어딘가 앞뒤가 맞지않는 논리다.

이제 주민들은 생존권 차원에서 공해산업, 골프장, 산업쓰레기 처리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다.

이 땅은 누구의 것인가?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의 임자는 정부도 기업도, 또 너와 나도 아니다.

다만 우리는 후손으로부터 잠시 이 땅을 빌려서 살고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보전해서 물려줘야 한다.

깨끗한 물 한모금, 상쾌한 공기 한모금이 값비싼 보약보다 낫다는 말처럼 이 땅을 건강하게 보전해서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우리와 후손들의 행복한 삶을 약속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